

# 이월호

## Contents

연대사업 ( '자립생활조례제정' 간담회 & 설명회 )	2
2016년 6월 28일 제정 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환영한다	6
기타사업 -자조모임 종이접기 5차-( '작품명 3단 사람장' )	8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조모임 보치아 경기	10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너와 나의 연결그리> 심화과정	12
연대사업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모금, 선전전 행사	1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	16
인턴 실무역량강화 워크숍	18
장애인 에티켓	20
이달의 정보	22
이달의 시	23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24
광고	25



# ‘자립생활조례제정’ 간담회 & 설명회

문지수

06월 02일 14:00-15:00 (오후 2:00-3:00), 강북구의회 3층 의원 휴게실에서 김도연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이 주관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제정’ 간담회 &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강북구의회에 시간보다 먼저 도착한 나는 속으로 ‘……좋은 기회이고 참석할 수 있어서 좋은데 말이지……’ 라고 생각하며 서울시센터지원사업팀 (허성현 팀장님, 박계형 팀장님, 전난희 팀장님)과 김성운 인턴 선생님, 이지숙 회원님, 김두용 회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팀장님들과 김성운 인턴 선생님, 이지숙 회원님, 김두용 회원님이 오셨고, 평소에 보기 어려운 기자님, 의원님도 오셨으며, 모두 자리에 착석하고 나서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 설명회가 시작되었다.

먼저 ‘장애인자립생활조례제정’ 간담회를 마련해 준 김도연 의원님의 소개로 간담회에 문이 열렸다.

“김도연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자립생활조례제정 간담회 &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담회가 시작하기 전에 그녀는 탁자 위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안 의견의 조례안 반영 내용,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측의 제안서 등을 미리 배포해 놓았고 그것들을 설명해주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들을 했다. ‘조례제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과연 잘 해결될까?, 이번 조례는 어떻게 될 지 장담하기 어려울 지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간담회에 집중하였다.

허성현 팀장님이 먼저 강북센터 측의 의견과 제안을 말씀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각자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 등을 토대로 본인들의 의견들을 말하였다.

‘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주거 문제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들에게 주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시급한 거죠…….’ 이견 부정 못하는 사실이라고 생각 한다. 실제로 시설을 퇴소하면 그들, 시설퇴소자는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경제적인 압박감도 느끼기 마련이다. 이 소식지를 읽으시는 여러분, 당신도 공감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도 주택을 마련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의 절실함과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강북센터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제정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간담회 자리에서 의견을 어필하였다.

간담회가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고 김도연 의원님의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차후 간담회 진행하게 되면 부디 참석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간담회를 마칠 수 있었다.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하였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제정 간담회 & 설명회에서 우리가 제시한 안들이 원하는 데로 조례제정이 될지 솔직히 걱정이 되는 마음이 생겼다. 다른 한 편으로는 희망을 가져본다. 좀 더 나은 조례로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환영한다.

## 성명서

자치법제정을 통한 권리실현!!!

강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오는 2016년 06월 28일(화) 강북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가 구의회에 상정, 통과됨을 열렬히 환영한다.

강북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는 본 센터에서 03월 08일자 연대제안서 배포를 시작으로 구의회와의 지속적인 면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공청회, 강북구청과 의회 등에 조례안 제시, 조례제정 간담회 등 본 센터와 구의회, 구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조례안 이라고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중증장애인도 매사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자립생활이념이 도입된 이후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자치구의 자립생활센터들이 지속적으로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한 결과 송파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24개 자치구에 조례제정이 이루어졌다. 강북구는 24번째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로써 법적으로 자립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강북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은 장애인당사자로 직원이 구성된 자립생활센터가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구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장애인당사자의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조례제정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강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을 적극적으

로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 장애당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및 행정적인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자치구의 조례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정된 조례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본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보다 나은 강북구의 자립생활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추구하고자 하는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누구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앞으로도 지역주민 및 구의회, 담당부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해주신 강북구의회 의원님들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담당부처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16. 06. 29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자조모임 종이접기 5차

[ '작품명 3단 서랍장' ]

문지수



유난히 덥고 습한 날씨,

6월 10일 오후 13:00 - 15:00 (1:00-3:00), 강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회의실 1118호에서 5차 자조모임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자조모임 종이접기 관련하여 차후 모임 약속 시간 및 요일, 재료 등 의견을 나눴다.

차후 모임은 6월 24일 금요일 13:00 ~ 15:00로 정했으며 센터 내 사정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여 일정 조율하거나 회원들 중에 부득이하게 못 오는 경우 사전에 미리 연락 주는 거로 하였다.

회의를 정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종이접기를 시작했다. 오늘은 '3단 서랍장'이라는 작품 주제로 작품을 만들 계획이다.

"이 종이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요."

"잘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하시며 서로 응원하며 종이접기를 한다.

서로 각자 자신만의 3단 서랍장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



차근차근,  
천천히…….

다들 큰 종이부터해서 작은 종이로  
상자 틀을 만드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중간에 반대로 접어서서 어려  
움을 겪은 회원들도 있었다.

“어라…….”



우여곡절 끝에,

‘3단 서랍장’을 완성했다.  
다 완성한 ‘3단 서랍장’을 보시며 회원 분들과 난 매우 신기해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모임 때 봐요~.”

다 완성시킬 수 있는데 시간이 금방 가서 너무 아쉬워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차후 모임 때 미리 종이접기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회원들만의 숙제를 스스로 하였다.



시간이 금방 가서 아쉬운 마음이 들  
었다.

그러나 완성시키고 나니까 작품이  
아름다워 보였다.

다음에는 전원 다 완성해보면 예쁘  
고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  
다.



# 동료장애인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다녀와서.....

김성훈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 서울시에서 후원한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의 교육에 참여하여서 수료하였습니다. 이번 동료장애인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은 동료장애인상담가 기초과

정에 이어서 한층 심도 있는 교육과정으로 동료장애인상담가란 한 발짝씩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심화과정 강사로 초빙되어 오신 강사님은 동료장애인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의 강사를 맡아 주셨던 피노키오장애인IL센터의 정만흔 소장님이 다시 초빙되어 오셔서 심화과정을 강의하고 진행해 주셔서 알차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심화교육과정에는 10명이 참여하여서 2박 3일 동안의 동료장애인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교육 받았습니다. 심화과정 주요 교육일정은 첫째 날(6월 13일)은 「오리엔테이션」, 「관계만들기」, 「이론교육(형식:스터디)」, 「하루정리하기」로 일정이 이루어졌으며, 둘째 날(6월 14일)은 「상담실습1(2인1조)」, 「상담실습2(팀별)」, 「하루정리하기」로 이루어지고, 셋째 날(6월 15일)은 「전체 피드백(개별사례) 및 수료식」 등으로 구성되어 심화과정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6월 13일)은 동료장애



인들과의 모임에서는 저 번에 기초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초과정 때에 닉네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새로 오신 교육 참여자는 '푸' 등의 닉네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심화과정에 참여하신 동료 교육생은 대부분 양성교육 기초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시 만나 반가운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과정에 참여 해 주신 분들과도 반가운 인사를 하고 모임을 갖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안을 감사님의 심화과정 이틀교육은 「인간중심상담이론」을 스터디 형식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 인간중심상담이론

○ 인간중심 상담 및 구조

1. 가정, 2. 인간관, 3. 이론적 배경, 4. 성격이론

○ 상담의 기술 및 상담과정

1. 상담의 기술 - (1) 공감, (2) 무조건적 긍정적 배려, (3) 진실성
2. 상담 과정 - (1) 상담 목표, (2)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 (3) 내담자가 겪는 경험
3. 인간 중심적 상담의 과정

둘째 날(6월 3일)의 오전의 '상담실습1(2인1조)' 교육에서는 교육 참가자 10명이 2명씩 한 조가 되어 총 5개조를 구성하여 상담자와 내담자 역할로 정하여 상담실습을 하고 상담자 역할을 맡은 분이 상담하고 실습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상담실습2(팀별)' 교육은 5명씩 2팀을 이루어 촉진자, 관찰자, 내담자의 역할을 정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역할을 분담하여 상담실습을 하고 관찰자 역할을 맡았던 분이 자신의 팀의 상담 실습한 내용과 과정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화과정 교육에서 이론 강의와 상담실습은 동료장애인상담가들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감사님의 이틀교육과 2인1조의 상담실습, 팀별 상담실습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6월 15일)의 모임에서는 교육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스팸이나 느낀 것, 좋았던 것과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료장애인상담가 심화과정 교육 일정이 모두 끝나고 수료증을 받고 이번엔 참여한 모든 분들과 아쉬움을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료할 때는 단체 수료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 선전전 행사

문지수

때는 6월 9일 유난히 덥고 습한 날, 19:00-20:30 (오후 7:00-8:30), 미아역 3번, 4번 출구 지하에서 지난달에 미아사거리역 지하, 지상에서 했던 행사와 동일하게 구본승 위원장님이 주관한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 선전전 행사에 재 참여하였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선 이전 소식지에도 말했지만,

이 글을 보고 있는 독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평화의 소녀상’이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말하는 것이고 2011년 12월 14일 민간단체 정대협이 중심이 돼 서울 종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에 30여 개가 있다. 최근 인천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드디어 19시부터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 선전전 행사가 시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북구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평화의 소녀상 관련하여 모금 운동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맨 처음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홍보지 나뉘는 지난달과 달리 두 번째는 지하라서 사람이 많이 없었다는 점만 빼면 무난하게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하여 홍보지를 사람들에게 나뉘었다.



"안녕하세요,  
홍보지 가져가주시고요,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평화의 소녀상' 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아픔을 덜어내고자 하는 의미로 세운 동상이에요."

"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은, 저희 강북구에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 서명전과 함께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참여 가능하신가요?"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 선전전 행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지하에서 홍보를 하니깐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나와 비슷한 또래 여성들은 많이 참여를 안 하는 편이다. 반면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또는 어머님들이 많이 참여해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강북구에도 '평화의 소녀상' 이 건립됐으면 좋겠다.



#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센터장 및 직원역량강화’

문지수

06월 21일 13:50-18:00 (오후 1:50 - 6:00),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서울시청 복지본부 장애인 자립지원과에서 주관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장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였다.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는 걸까’ 너무 일찍 도착했나보다.....,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 도착해보니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서울시센터지원사업팀인 허성현 팀장님, 전난희 팀장님, 나 (문지수 간사)는 준비 과정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안해영 팀장님도 합류하였다.



외부 교육에 참석할 참여자들이 자리에 착석하고 나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센터장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시작되었고 양미숙 교수님(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과)은 IL지원 사업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추진, 평가 환류체계에 대한 이해를 설명해주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처럼 지역 연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비장애미션 분들이 있는 기관, 특히 주민 센터, 구청도 신경써주면 좋을 텐데.....’

정흥채 부장님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IL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따른 회계분야 실무를 설명해주었다.

“개선하고 인지하고 교육을 통해 소통하는 게 비로써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 .”  
“법인회계랑 시설회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김경식 주무관님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센터 보조금 집행기준 설명을 하였다.

“내년 2017년, 차후 년도에 보완하여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1분기 교부금, 2분기 교부금 신청 한 것처럼 3분기 교부금 신청할 때 정산 후 실적보고 하는데 7월 10일 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 기준도 보고, 임금 조사표를 보았다.

“임금 조사표는 인턴 제외한 기관 소속 전 인력을 조사 대상으로 추후 공문 발송 시 꼭 작성해주세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 센터장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끝나고 난 후

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 센터장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 참석해서 그에 관한 교육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으나 3분기 교부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과 6월 27일에 서울시청에서 평가 감사가 나온다는데 . . . . . 평가를 잘 못 받으면 어떡해야 하나 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2분기 동안 서울시자립생활센터지원팀이 나름 열심히 하였기에 잘 받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 센터장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6시 넘어서 끝나기에 곧바로 퇴근하였다.



# 중증장애인 인턴 실무교육 워크숍을 갔다 와서…….

김성준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시 대방역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 아르킬리지 4번 홀에서 해남복지회가 주최한 중증장애인 인턴 실무교육 워크숍에 참가하여서 중증장애인 인턴 실무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인턴 실무교육 워크숍에서 동료 인턴장애인들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의 중증장애인 인턴 실무교육 워크숍은 인턴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행정, 회계, 직장예절 등의 실무교육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턴 실무교육 워크숍의 강사는 해남복지회의 강현록 사무처장, 해남복지회의 김재익 상임이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선이 극장, Good Job자립생활센터의 조안나 주임, 서울시 장애인 자립정책팀의 김경식 주무관, Good Job자립생활센터의 오인영과 MC김재성 등 7명의 강사 분들이 오셨습니다.

주요일정은 첫째 날(5월 30일)은 「중증장애인 인턴제 의미와 추진 배경」, 「장애의 개념과 특성」, 「행정 이론 및 실습」, 「우리, 친해져볼까요?」 등의 일정이 있었고, 둘째 날(5월 31일)은 「직장예절」, 「회계 실무 안내」, 「인턴 간담회」, 「교육 수료식 및 단체사진 촬영」 등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5월 30일)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 해남복지회의 강현록 사무처장이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배경과 취지」라는 주제 아래 중증장애인이 처한 고용과 노동 현실, 직업재활패러다임과 고



용지형패러다임,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 인턴제,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추진배경, 중증장애인의 고용연계를 위한 사회연대 고용 등을 강의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해남복지회의 김재익 상임이사께서 「장애의 개념과 특성」이라는 주제로 장애개념의 변천과



발전과정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선이理事이 「행정이론 및 실습」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레크리에이션 시간으로 MC 김재성이 「우리, 친해져볼까요?」 워크숍에 참여한 인턴들과 재미있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지며 동료 인턴들 간의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둘째 날(5월 31일)의 첫 번째 강의는 Good Job자립생활센터의 조안나 주일이 「직장예절」을 주제로 올바른 마음가짐, 직장생활 예절, 마음을 얻는 대화법, 직장인의 센스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팀의 김경식 주무관이 「회계 실무 안내」를 주제로 회계에 대하여 강의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인턴 간담회로 강지선 선배 인턴과의 만남의 시간과 동료 인턴들과의 조별 모임을 갖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틀간의 인턴 실무교육 워크숍에서 강사님들의 알찬 내용으로 실무에 도움 되는 많은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번 중증장애인 인턴 실무교육 워크숍은 동료 인턴들과의 첫 모임을 가져 함께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같이 모임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인턴 실무교육 워크숍 중에는 인턴 동료장애인과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는 알차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인턴 실무교육 워크숍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으며 수료식 후에는 동료장애인의 인턴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그 동안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아쉽게 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장애인 에티켓\_지적장애



### 외부 장소에서 만날 때

정신지체인은 교통수단 이용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 아는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좋고 사전에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으며 늦지 않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귀가하였는지 확인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레크리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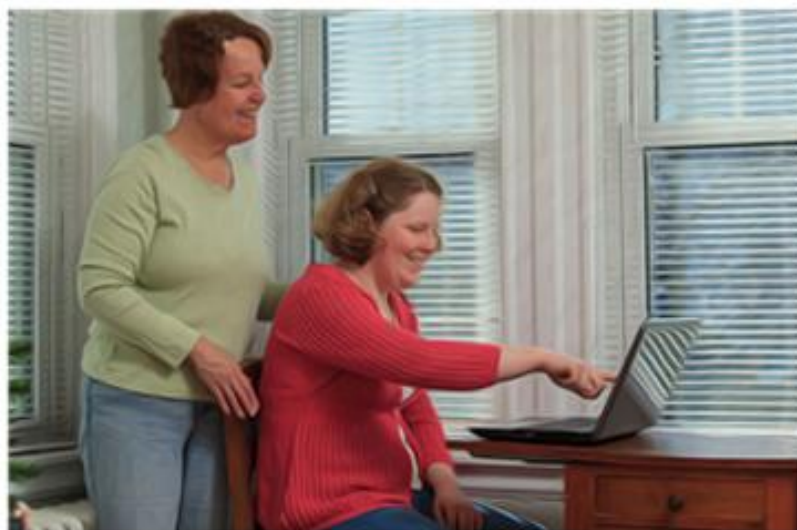
비장애인은 정신지체인의 지능 수준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서감정 오락적 유희감각까지도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이들의 정서수준이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발달정도를 파악하여 이들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시 비장애인에게 할 수 있는 농담 "아 돌아버리겠네", "그것도 못하냐.", "지능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 등의 말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르쳐 줄 때는 이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반복해주어야 합니다.



다.



#### 지적장애인을 응대할 때

한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거나 길을 헤매는 지적장애인이 있다면, 다정하게 신상을 물어보고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정신지체인에 대한 사전 정보

정신지체인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비장애인과 외견상의 차이는 없으므로 이들이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신지체인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정신질환자로 오인하거나 외견상의 장애인만 장애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이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isability.seoul.go.kr>

이미지출처 - <http://www.irepublic.kr>



## 이달의 정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년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발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인 ㈜탐앤탐스 등 17개 업체를 2016년도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발표했다. 이 중 올해 신규로 선정된 사업체는 10개사이며, 인증기간 만료로 재선정된 사업체는 7개사이다. 공단에서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확대 및 고용유지, 중증 및 여성 장애인의 고용창출 등을 심사하여 매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을 받으면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중차우상지원 선정 시 우대, 고용노동부 장기근로장려 3년 면제, 지방부 출생 및 일반동의 적격심사 시 가점, 조달청 출생 및 일반동의 적격심사 가점, 중소기업청 영외지점업체 선정 가점 부여,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유효기간은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이다.

#### ■ '10매장 1명 이상 장애인 채용 목표'

이번에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탐앤탐스는 고객별 맞춤형 커피 서비스로 알려진 업체로서 상시근로자 517명 중 25명이 장애인 고용률이 무려 8.70%에 이른다.

㈜탐앤탐스는 중증 및 여성 장애인을 위한 탄력적 근무시간제 및 시간 선택 제를 도입하여 1차양극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유도 하고 고용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적용매장에 '10매장 1명 이상의 장애인 채용' 을 목표로 2015년부터 중증 장애인 구분 모집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를 통한 맞춤형훈련을 통해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고 있다. 고충 접수 전화 및 비상연락망을 24시간 운영하며, 매뉴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적응력을 높이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더 많은 중증 장애인에게 기회 제공'

또한, 이번에 선정된 ㈜이랜드파크는 장애인근로자 160명(장애인고용률 3.65%) 중 정신, 뇌병변, 지적, 자폐성 등 중증장애인 비율이 87.5%(140명)에 달하는 등 중증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환경에 민감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모든 기구 정위치 시각화' 및 '문턱 없는 매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 서울시, 시립 장애인 영농시설 신설

발달장애인 등 10명의 중증장애인 농부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며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한다. 서울시가 80% 이상 제조 및 임가공에 치중된 장애인직업재활의 직종 다변화를 위하여 1차 산업인 영농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 영역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1차 산업 분야의 직업재활 영역 확장을 위하여 공모사업 형태로 장애인 영농사업을 선정·지원했다. 장애인 영농은 그간 자연친화적이고 반복적인 직무 특성상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라는 연구가 여럿 있었지만, 서울시 안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농지문제, 짧은 기간에 사업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업종특성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시유지 소규모 농지 13,335㎡(4,040평)에 조성된 비닐하우스 등 수익시설을 기반으로 장애인농업 작업장 설치하고 특수교육 전문가를 시설 종사자로 배치했다. 보호 작업장은 서울시 시립시설임에도 농지확보를 위해 타 지역에 설치되었지만, 서울시 장애인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체험학습 등 서비스는 남양주, 구리시 거주 장애인들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 시설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모두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

주된 사업은 토마토, 고추 등 모종의 노지재배, 쌈채류의 하우스 및 노지 재배 등이다. 비장애인과 하기 어려운 농사일을 익히기 위해 지적·자폐 등 중증장애인들은 ▲호미, 산 등 농기구 사용훈련, ▲흙을 고르고 잡초를 뽑는 환경관리, ▲쌈채를 뜯고 토마토를 따는 수확작업까지 더디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훈련하며 직무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농작물 재배 외에 동물하우스에 체험 및 관광용으로 토종닭, 토끼, 기니피그 등을 장애인들이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자폐장애인들에게 훈련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시는 1차 산업 특성상 농작물뿐만 수익을 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가공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재배, 요리, 취식을 직접 체험하는 ‘삼시세끼’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기존의 하우스 시설을 스마트 팜으로 전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영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장애인의 확대를 위해 시설의 수익성 확보도 큰 필요한 만큼 ‘16년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획득하여 공공기관 등에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홍순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 영농은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라며 “장애인일자리, 직무개발에 특화된 서비스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고 활동할 수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에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행복하려고  
너무 성공하려고  
너무 똑똑하려고  
너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밀려오는 파도와  
너울에 몸과 마음을 내맡기고서  
마음이 가는 대로  
원하는 것을 적당히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적당히 거절하면서,  
다가오는 인생을 즐기세요.  
그럴 때 마음은 비워지고  
인생은 스스로 가야 할 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중에서……







# 한 · 일 국제세미나

# 지적/발달장애인과 자립생활

주 제	지적/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적/발달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 자립생활 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실천사례 (자조모임, 일상생활, 직장생활)를 중심으로 국내 및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함
내 용	주제발표 1	오카베 고우슈케 (와세다대학 문화구성학부 교수)
	주제발표 2	최복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3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사례발표 1	최미경 (함께가는 강북장애인부모회 고문)
	사례발표 2	정양균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홀 입주자)
	좌 장	최미경 (함께가는 강북장애인부모회 고문)
	통역 및 번역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일 시

2016년 7월 19일 14시~17시

장 소

이룸센터 이룸홀 지하 1층(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

참여대상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관련 업무종사자, 장애인, 비장애인

신청방법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www.kbcil.co.kr)에서 신청서 작성  
이메일(kbcil@hanail.net) 접수

문 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08-7776, kbcil@hanail.net

주최 및 주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 원 서울특별시

주 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